# 본지 김복기 대표, 석남 이경성을 기리는 미술이론가상 수상

PEOPLE

2017 / 12 / 06

황영희




제4회 '석남 이경성을 기리는 미술이론가상'에 본지 김복기 대표(경기대 부교수)가 선정됐다. 이 상은 한국 미술비평의 태두이자 인천시립박물관을 시작으로 국립현대미술관 등 미술관 수장을 두루 역임했던 미술행정가 이경성(1919~2009) 선생을 기리고자 2013년 미술사가 최열 등이 제정했다. 김 대표는 서울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1984년 중앙일보사 《계간미술》에 입사해 미술언론의 길을 걸었다. 이후 《월간미술》 편집장을 거쳐 1999년 《아트인컬처》를 창간했다. 2007년에는 영문잡지 《-art in ASIA》를 창간해 한국미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. 김 대표는 '33년차 기자'로 한국은 물론 해외 비엔날레와 아트페어 등 동시대미술 현장을 100여 회 이상 취재, 보도했다. 또한 그는 1993년 한국근대미술사학회 창립회원으로 활동한 근대미술사학자로서 이쾌대 배윤성 정종여 등 월북작가와 이응노 전화황 니콜라이 박 같은 디아스포라 작가 등 민족 분단사와 관련된 논문을 꾸준히 발표해오고 있다. 미술사 발굴 작업에서 수집한 근현대미술 관련 자료 1만 여점을 2013년

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해 전문자료 연구기구인 '미술연구센터' 창립에 기여한 바 있다. 이곳 '김복기컬렉션'은 미술사의 희귀 사진 및 문헌이어서 미술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.